너무나 완벽한 연기

〈노재원 배우 몰아보기〉

글. 김기정 MBC 종합편집팀 DI 파트 / 사진 출처 : 눈컴퍼니, 넷플릭스, MBC

요즘 방송 뭐 봄? 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작품은 <오징어 게임 시즌 2>였다. 다만 이 작품을 리뷰 하자니 핫한 작품인 만큼 리뷰는 오히려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이 작품의 보석 같은 배우,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배우 노재원 배우 몰아보기를 추천해 보고자 한다.

Filmography

Movie

2024 보통의 가족
2023 세기말의 사랑
2022 동감
2022 윤시내가 사라졌다
2021 당신의 좌석은 어디인가요?
2021 스테이세이프
2021 아빠는 외계인
2021 힘찬이는 자라서
2021 한비
2020 드라이빙 스쿨

Drama

2024 오징어 게임 시즌2
2024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2024 삼식이 삼촌
2024 살인자ㅇ난감
2023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2023 D.P. 시즌2
2022 어쩌다 전원일기

<오징어 게임 시즌 2>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연기는 단연 공유 배우님이 연기한 '딱지남' 캐릭터라 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더욱 돋보이는 캐릭터가 있으니, 바로 노재원 배우가 연기한 '남규'다. 강자 옆에 붙어 약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모습부터, 괴롭히던 민수와 동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보여주는 어색하고 뻘쭘한 표정까지, 그의 연기는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볼 법한 한 인물을 오징어 게임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생동감을 준다.

스포일러로 인해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직 작품을 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남규라는 캐릭터에 주목하며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배우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캐릭터의 성장(물론 악의 축으로서)이 탁월하게 표현된 이 작품은 노재원 배우의 존재감을 한층 더 빛나게 한다.

중재자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노재원 배우의 매력에 처음 빠지게 된 작품이다. 김서완이라는 인물은 현실에서 도피해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는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존재한다. 그런 그의 모습을 단순히 정신병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바라봐 준 '중재자님' 정다은 간호사(박보영)를 만나며 점차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현실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노재원 배우는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담백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게 표현해냈다. 사실, 노재원 배우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의 열연도 돋보이는 작품이기에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하다.

찌질 연기의 정점 <살인자ㅇ난감>

<살인자ㅇ난감>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범죄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한 인물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극 중 하상민이라는 캐릭터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평화로운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동창 최인선을 만나며, 그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후 벌어지는 사건들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다.

다만, 작중 노재원 배우의 연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그야말로 찌질하고도 악랄하게 표현해내며 캐릭터의 설득력을 한층 더 높였다. 특히,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통화 장면에서 보여준 연기는 '어떻게 저렇게 찌질하면서도 얄밉게 연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인상 깊다. 하상민은 단순히 비열한 인물이 아니라, 작품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캐릭터이며 <살인자ㅇ난감>이라는 작품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을 생생히 그려낸 그의 연기를 기대하며 이 작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연기 설명을 하다 보니 스포일러를 왕창 해버린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길 바라며...)

머리가 아닌 감정으로 하는 수사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보고 이 작품을 본다면, 약간 몰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만큼 따뜻하고 감정적인 캐릭터성이 돋보인다. 필자 역시 아직 7화를 정주행 중인데, 노재원 배우의 활약이 점점 더 기대되는 작품이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의심과 사랑을 중심으로 주인공들의 심리선에 집중하게 만든다. 여기에 조연 배우들과의 상호작용이 더해져 작품의 몰입감이 배가되는데, 극 중 구대홍 경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으며, 주인공들 옆에서 그들의 캐릭터와 조화를 이루며 상호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구대홍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태도는 신기하게도 관객이 주인공들의 심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한다. 캐릭터에 집중하다 보니 작품에서 이 캐릭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작품을 보는 재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마무리하며

글을 쓰다 보니 '섬세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노재원 배우는 악역이든 선역이든, 혹은 독특한 캐릭터를 맡든 간에 그 인물을 정말 세밀하게 표현해 내는 배우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만의 해석을 바탕으로, 제스처나 표정에서 그만의 색깔을 녹여내 보는 이로 하여금 찌질함과 다정함 사이, 냉정함과 따뜻함 사이의 어딘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듯하다.

이 섬세한 표현력이 단순히 기술적인 연기를 넘어서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비결이 아닐까? 이 글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작품을 비롯해 노재원 배우가 등장한 모든 작품에 관심 가져주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